

# 산단형 행복주택 건립 시동

익산시·LH 전북본부, 제3산단 공동주택부지 200세대 추진 협약 체결

익산시(시장 정현율)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본부장 권창호)가 산단형 행복주택 건립을 공동 추진한다. 익산시와 LH전북본부는 지난 19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정현율 익산시장과 권창호 본부장, 윤영숙 익산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단형 행복주택 건립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산단형 행복주택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부지에 들어서는 약 200세대 규모 공공임대 아파트이다. 제3산단 입주기업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의 제4산단 삼기 및 낭산농공단지, 개별입지 공장의 근로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해 인근 지역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국토부 승인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2021년 하반기 착공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익산시는 산단형 행복주택이 건립되면 북부 지역 산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동시에 안정적이고 쾌적한 정주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산업단지 및 상업부지 분양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젊은 세대가 저렴하게 행복주택을 임대하여 직장 인근에 거주함으로써 인구이탈 방지에 기여하고, 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현율 시장은 “산단형 행복주택은

근로자와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해 임대 시세의 80% 정도에 공급될 것이며, 지역 사회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우리 미래 세대인 젊은이들의 도약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치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와 LH전북본부는 지난 19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정현율 익산시장, 권창호 본부장, 윤영숙 익산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단형 행복주택 건립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환경친화도시’ 익산,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시정 집중

### 상반기 일반정책과제 보고회

익산시는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9년에 이어 2년차 운영 중인 2020년 정책과제 중 일반 정책 과제에 대한 상반기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익산시는 올해 초 부서장의 책임 행정 실현을 위해 부서별 핵심 업무를 정책과제로 선정한 바 있는데, 특히 환경문제 국복에 초점을 두고 환경친

화도시 실현과제 30개 사업을 정책과제로 진입시켜 전체 97개 과제(종합정책과제 31개, 일반 정책과제 66개)를 선정·운영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환경과제·적극 행정과제 등 시민 중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특히, 상반기 우수사례로 ▲2021년 국기예산 7,500억원 달성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시설관리와 경영효율성

확보를 위한 도시관리공단 설립 검토 용역 등 준비 ▲군북부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청년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위한 청년참여 포인트 제도 시행 등의 청년지원 사업 ▲눈에 띠는 환경 정보 전달을 위한 홈페이지(‘환경친화도시 정보마당’) 개설·운영 ▲역사·문화·숲이 어우러진 공모작 선정 등 신청사 건립사업 ▲전문컨설팅 용역 추진 등 청렴도 제고 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다면, 코로나9의 초비상 사태로 일부 정책과제 관련 사업 및 행사가 지연되거나 취소되어 사업 추진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정현율 익산시장은 “코로나19로 정책 과제의 추진실적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파급된 업무들이 너무 많아 이에 애써준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격려하며 하반기 최종 성과달성을 위해 미친수건도 다시 짜는 심정으로 전 부서가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진화인력 치유프로그램 운영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준태)는 ‘봄철 산불특별 대책기간’(2월 1일~5월 15일)이 종료함에 따라 진화인력의 지원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문화의 날을 운영한다.

봄철 대형산불로 기록된 안동산불, 고성산불, 울주산불은 물론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 혈기 운용기관의 핵심 중

추가 되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행하면서 봄철 산불 최전선에서 고생한 진화인력을 위해 문화의 날을 운영하여 지원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인명구조, 항공방제, 화물운송의 임무 또한 안전하게 완수하자”고 당부하였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시, 주요관광지 환경개선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선양동 해돋이공원 경관조명 확충 등

군산시가 주요관광지 환경개선을 통해 새로운 힘을 불어넣으려 노력하고 있다.

군산시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관광산업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주요 관광지 내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월명동 시간여행마을 권역 확장을 위한 기반사업을 전개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구도심 주요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한전 지상기기(변압기 등) 시설물의 외부 노후화 및 훼손이 심함에 따라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해 깨끗하고 청정한 군산관광 이미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시의버스터미널부터 근대역사 박물관, 동국사 일원을 대상으로 해방로, 대학교 구간 내 설치된 한전 지상기기 시설물 72개소 외부를 군산시 주요 관광지원 역사, 자연, 관광 등을 홍보 시장으로 랩핑해 시간여행마을 관광환경을 개선하고 시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군산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예정이다.

이율러 동국사부터 군산상고 사거리 구간 도로변, 지중 범위기합 24개소에는 이곳을 소재로 한 테마형 랩핑을 실시해 ‘역전의 명수’ 군산의 이미지를 새롭게 되살릴 계획이다.

또 지난 2018년도에 조성된 군산상고 앞 애구의 거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상고 사거리 및 학교 진입로에 애구공모양 회분 18개를 설치하고 관광객들의 안내를 돋기 위한 도로 이정표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간여행마을 권역 확장을 통한 관광 연계 효과 창출 및 이간판 광 활성화를 위해 소설 타류의 주제대인 선양동 해돋이공원 일원에 경관조명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해돋이공원 주 진입도로 빛꽃



군산시는 지난 2018년도에 조성된 군산상고 앞 애구의 거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상고 사거리 및 학교 진입로에 애구공모양 회분 18개를 설치했다.

나무 아래에는 수목들이 설치되고 공원 내인문화 기행을 위해 조성된 데크 공간에는 보안등이 설치되어 관광객의 유입을 확대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 속에 관광객들의 안전한 방문을 유도하고 안정적으로 관광자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특별근무를 펼쳐해주요 관광지에 대한 방역 및 계도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관광사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최성근 문화관광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관광지를 운영관리하면서 관광지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 새만금아카데미 개강

##### 25일 ‘순찰주’ 작가 강연

코로나9로 개강을 연기했던 군산새만금아카데미가 오는 25일부터 드디어 문을 연다.

군산시는 오는 25일 오후 7시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올해 첫 새만금아카데미 시민교양강좌를 연다고 밝혔다.

첫 강연은 미술교양서 최고의 스테디셀러 ‘그림 아는 민족 보인다’의 저자이자 미술평론가 순찰주 작가가 자리해 해박한 시견과 다정한 입담으로 어렵게 느껴졌던 옛 그림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해석하고 시민들을 드넓은 그림의 세계로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보는 흥미로운 강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순찰주 미술평론가는 신문사에서 미술 담당 기자로 오랫동안 국내외 미술현장을 취재했고, 신문사 문화부장과 취재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사단법인 우리문화 사단의 운영위원이자 미술컬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 주꾸미 산란장 조성

군산시가 어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주꾸미 산란장을 조성하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주꾸미 수산자원 회복과 어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도, 비안도 연안에 주꾸미 산란장 패류껍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주꾸미는 수심 5~50m 정도의 모래, 자갈 바다에서 주로 서해에서 상대적 서식밀도가 높으며 패류껍질을 이용해 어획하기도 하며, 특히 봄철 제철음식으로 어민들의 주 소득원인 수산자원이다.

최근 어린 주꾸미까지 무분별하게 포획되어 어획량이 급속히 감소되어 자원회복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산란장인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꾸미 금어기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꾸미는 산란 시기에 패류껍질에서 산란하는 습성이 있어 이에 군산시에서는 금어기(5.11~8.31)에 신규사업으로 2억3,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연도, 비안도 연안에 총 12만8,000개 산란장설물을 제작, 설치해 주꾸미 인입률 등을 관리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문화도시 시민이야기 ‘삼삼오오’ 추진

익산시가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7월 13일부터 26일까지 문화도시 시민이야기 주간으로 정하고 ‘삼삼오오’를 익산 곳곳에서 개최한다.

‘삼삼오오’는 문화도시 익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 모임으로 익산 시민들이 차밀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각각 원하는 일시와 장소, 주제와 형식을 정해 문화 도시에 대해 대화하고, 기록하고 공유하는 프로젝트다.

이야기 모임을 주최할 참가자는 오는 6월 22일부터 익산문화재단이나 익산=장양원 기자

산회장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문화도시에 관심 있는 익산 시민이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30개의 이야기 모임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야기 모임에는 모임 운영비와 이야기박스가 제공되며, 토론 촉진지도 파견된다.

이야기주간 ‘삼삼오오’는 익산을 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 있어 시에 제안하고 싶은 사업이나 시민공동체를 결성해 직접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된다. /군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